

원단에 잔털이 많으면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원단에 잔털이 많으면 함기량이 많아 보통은 잔털이 있는 옷감으로 가을, 겨울의 추울 때 입는 옷에는 잔털이 생기게 하여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도 따뜻하지만 우리는 털이 있는 옷을 보면 만져보지도 않고 입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따뜻하다고 생각한다. 여름철의 옷감에는 잔털이 없으나 겨울용이라면 잔털이 있는 옷감이 많다. 예를 들어 코듀로이라든가 벨비틴, 벨빗, 면넬, 비엘라 등이 모두 원단의 표면에 잔털이 일으켜져 있다. 그리고 울이라고 하면 추동을 이미지하고 털을 생각한다. 추동용 모직물 옷감으로서 잔털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물로 하고 나서 습기, 수분을 주어 축소와 더불어 잔털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축용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직물의 표면을 가시 또는 침포로 굵어서 섬유를 굵어내 잔털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기모라고 한다. 영경귀 열매 껍질의 가시로 잔털을 세운 느낌은 우수하고 품위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침포를 사용한 기모가 많다. 전자를 영경귀 기모, 후자를 침포 기모라고 구분하고 있다. 침포 기모는 면직물을 위시한 폴리에스터 등 기타 직물의 기모 방법으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모직물에 잔털이 있는 것은 주로 방모직물 옷감에 많고 소모

직물 옷감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슈트 등으로 사용하는 소모옷감은 잔털이 없고 평활하여 광택이 나도록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일드를 붙인 워스티드는 짜여진 올이 보일 정도의 잔털을 가지고 있다.

* 코듀로이(corduroy) : 누빈 것처럼 골이 지게 짠 우단과 비슷한 직물로서 코르덴 또는 니들 코드(needle cord)라고도 한다. 천의 빗갈이 다양하고, 골이 크고 작은 것의 여러 층이 있다. 질기고 실용적이어서 작업복·캐주얼 웨어·아동복 등에 많이 쓰인다.

* 벨베티(velveteen) : 첨모직물의 하나로서 파일에 면사를 쓴 면벨벳. 1725년경 프랑스의 리옹에서 처음 제작되었고, 1756년경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많이 생산하였다. 용도는 여성복·아동복, 가구용 원단, 침대 덮개 등이다.

* 벨벳(velvet) : 파일직물(pile 織物 : 첨모직물)의 하나로서 직물의 표면에 연한 섬유 털이 치밀하게 심어진 직물. 비로도(veludo) 또는 우단이라고도 한다. 파일직물에는 경사로 파일을 나타내는 경파일 직물과 위사로 파일을 나타내는 위파일 직물이 있는데, 벨벳은 경파일 직물에 속한다. 벨벳은 경사로 바탕용 경사와 파일용 경사를 사용하고, 조직은 평조직이나 능조직으로 하며, 파일용 경사로서 직물 바탕 위에 부드러운 파일이나 루프를 나타낸 직물이다. 제작할 때 파일을 만들기 위하여 위사 방향으로 철사를 삽입하고 바닥조직과 파일조직을 교대로 제작 후에 절모하여 컷 파일로 하든가, 절모를 하지

얇고 고리 모양의 루프를 표면에 치밀하게 나타나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중직의 조직으로 베를 짠 다음 흥두께에 감기 직전에 두 겹이 된 직물 사이를 칼로 잘라 가르면 두 장의 직물이 되고, 잘린 경사가 잔털이 되어 천의 표면에 나타나게 된다. 현업에서는 모켓이라고 하고 이것을 짜는 기계를 모켓기(moquette)라고 한다. 요즘은 견사 외에 면사 또는 화학섬유를 사용하며, 이들을 교직하기도 한다.

경파일 직물에는 벨벳 이외에도 플러시가 있는데, 파일의 길이로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벨벳은 파일의 길이가 0.3~1mm 정도인데, 플러시는 1mm이상을 말한다. 파일용 경사로는 견사·작잠사(柞蠶絲)·인견사·아세테이트사·나일론사 등이 쓰인다. 벨벳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시폰 벨벳(chiffon velvet : 가볍고 부드러운 견제품인 고급 벨벳)·레이온 벨벳(rayon velvet : 파일을 짧게 하고 곧바로 세워서 파일의 감촉을 약간 뽀뽀하게 한 고급 벨벳)·브로케이드 벨벳(brocade velvet : 무늬를 나타낸 벨벳) 등이 있다. 위파일 직물은 위사로 바탕용 위사와 파일용 위사를 쓰고, 파일용 위사로서 파일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벨비틴과 코듀로이가 있다. 벨비틴은 파일용 위사에 면사가 쓰이기 때문에 면벨벳이라 하기도 한다. 코듀로이는 경사 방향으로 파일로 형성되는 일정한 넓이의 두둑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 벨루어(velour) : 섬세하고 조밀한 실 보풀이 일어나도록 기모한 천으로

파일직물·파일편포·방모사 또는 면사로 된 천이 그 가공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긴 합섬사의 밋밋한 천에도 이 가공이 응용되고 있다. 표면가공방법으로는 천 표면의 파일직물을 절단하거나, 실 보풀을 긁어 일으켜 빗질하는 기모공정과 실 보풀의 길이를 고르게 자르는 전모공정(剪毛工程)이 있다.

벨루어는 실 보풀의 높이와 정돈상태에 따라 스웨드·벨벳·하이파일·펠트 등 변화 있는 감각의 천이 된다. 특징은 촉감이 부드러우며, 따뜻한 감촉을 느끼게 하고, 양감을 느끼게 하며, 라미네이팅이나 코팅할 때 접착성을 높게 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기모면의 높낮이 또는 기모면의 부분배치에 의하여 기모 무늬를 나타낸 것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설사 긴 합섬사라 하더라도 자연섬유의 방적사로 된 천을 닦으려 하는 소재경향과 보온의 기능보다 외관 및 촉감에 더욱 치중하려는 패션경향이 벨루어의 개념과 수요를 새로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용도는 여성용 고급외투·모자·드레스·티셔츠·홈웨어·비치웨어 등 광범위하다.